

# 비행청소년의 초기 성행동에 대한 질적연구

## A Qualitative Study on the Sexual Activities of Juvenile Delinquents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전임강사 양 성 은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상담실장 조 주 영

Divi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 Yang, Sungeun

Cheongju-city Youth Center

*Counselor* : Jo, Ju-Young

### ◀ 목 차 ▶

I. 서 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점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phenomenological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sexual experiences of juvenile delinquents, and to understand how ecological systems affected their sexual activities. The participants were 13 adolescents on probation and 12 adolescents from juvenile correctional facilities or prisons. They explained their meanings of sex, their sexual behaviors, and their coping strategies for sexual problems. Participants conceptualized sex as physical intercourse, while excluding the emotional aspects of sex. They accepted adults' sexist attitudes toward male and female sexual behaviors, and followed adults' commercialization of sex. In contrast to their routinizing sexual behaviors, they had neither enough knowledge of sex nor effective strategies to solve sexual problems. The sexual activities of juvenile delinquents were influenced by their peer groups and sexual messages from media and internet, rather than by their family and school. The holistic view of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nteractions between individuals and the ecological systems when interpreting the sexual experiences of juvenile delinquents.

Corresponding Author: Sungeun Yang, Divi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ocial Welfare, College of Social Science, Chosun University  
375 Seosuk-dong, Dong-gu, Gwangju, Korea Tel: 82-62-230-6784 E-mail: seyang@chosun.ac.kr

**주제어(Key Words):** 비행청소년(juvenile delinquents), 성행동(sexual activities), 현상학적 연구  
(phenomenological study)

## I. 서론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확산, 교육 붕괴로 인한 학교 문제, 이혼 및 실직 증가로 인한 가족의 불안정 등이 혼재하며, 이는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이 정의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은 전체 인구의 23.4%에 달한다(통계청, 2002). 청소년보호위원회(2003)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인구 1,000명당 청소년범죄 건수는 전국평균 2.93에 달하며, 총범죄 대비 청소년범죄 비율은 5.7%에 이른다.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오히려 청소년범죄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 청소년비행의 양적증가와 함께 폭력화, 집단화, 연소화, 유흥화 등 질적인 면에서의 심각성도 주시해야할 점이다(이창수, 1998).

청소년비행은 일탈행동, 문제행동, 탈선행위, 부적응행동, 범죄행동 등과 혼용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비행청소년은 범법행위 혹은 그 연령층에는 허용되지 않는 규범위반행위를 한 청소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양종근, 지용근, 2002). 좁은 의미의 비행은 실정법상의 개념으로 청소년 범죄를 말하고, 넓은 의미의 비행은 사회규범으로부터의 일탈행위, 즉 제도화된 기대를 깨는 비상식적이고 비난받을만한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은 청소년범죄를 포함하여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가족의 통제에서 벗어나 보호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일탈행위, 부적응 행위까지를 의미한다.

청소년비행은 이것이 성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에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어 왔다.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요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음주, 흡연, 약물남용, 가족내 갈등, 학교부적응 등의 변인이 청소년비행과 상관이 있으며(양종근, 지용근, 2002; 조아미, 1999), 특히 성관련경험은 청소년기의 급격한 성적발달과 맞물려 청소년비행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혜원, 임

동원, 2004; 한인영, 박인선, 백연옥, 2001). 특히 비행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한 독립과 반항의 표시로, 또는 상대를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또는 그릇된 문제해결방법으로 성적행동을 악용하는 경향이 높아서 비행과 부정적 성관련경험의 악순환을 주목해야 한다(윤명선, 김순옥, 2001). 조기성행동이 비행에서 성인범죄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청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에 따르면 성매매여성의 43%는 10대 시절(14-19세)에 성매매를 처음으로 시작했으며(조선닷컴, 2004. 9. 20.), 청소년비행 중 강간범죄는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감민곤, 윤정화, 박지인, 김나영, 김도현, 정영권, 2002).

청소년의 성관련경험이 비행과 높은 중복성을 보이기 때문에 효과적 선도 및 일탈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의 성관련경험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한다는 합의는 이루었으나, 이들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일반청소년의 심리특성과 실제 비행이 아닌 비행경향성의 인과관계를 질문지를 통해 추론하는 양적연구들(김혜원, 임동원, 2004; 이창수, 1998; 조아미, 1999)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는 성폭력 상담소, YMCA, 가족보건복지협회 등에서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행동을 실태조사 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 사실이다(장순복, 김소야자, 한인영, 박영주, 강현철, 이선경, 2001; 조주영, 이영숙, 2003). 실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특정 치료모델에 입각해 상담효과를 검증한 연구들(고미자, 유숙자, 2003; 김명아, 2002)이 일부 있으나, 비행청소년의 성관련경험이라는 현상에 대한 심층적 통찰은 부재하다.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용이성 측면에서 비행청소년들을 연구에 참여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며, 더구나 성관련경험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룬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기피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비행청소년의 성관련경험에 대한 논의는 통계적 기술(記述)이나 피상적인 교정차원의 제

안에서 벗어나 이들이 성을 어떻게 개념화하며, 실제로 어떠한 성행동을 하고, 어떤 성문제로 고민하고, 어떻게 이에 대처하는지를 질적으로 이해(understanding)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에 대한 탐구는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y)의 본질로서, 현상학적 연구는 특정 현상에 부여하는 사람들의 해석과 의미를 명료화함으로써 행동 이면에 감추어진 관념, 느낌, 동기, 신념 등을 그들이 처한 맥락 안에서 심층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Schwandt, 1979).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의 본질적 특성은 비행청소년의 성관련경험이라는 현상을 이들이 처한 생태학적 체계 안에 맥락화하여(contextualized) 통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비행청소년의 성관련경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보호관찰, 소년원, 교도소 미결 청소년들의 성관련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체계에 관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들이 개념화 하는 성의 의미, 성행동 경험, 그리고 성문제에 대한 대처방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지

본 연구참여자의 선정은 준거적 선택방법(조용환, 1999: 28)을 따랐는데, 이는 연구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사례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일탈 및 부적응 행동으로 인해 보호관찰소, 소년원, 교도소 등의 기관에 인계되어 있는 청소년기본법이 정의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25명(남성 13명, 여성 12명)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17.5세였다. 학력은 현재 중고교 중퇴자가 18명, 중고교 재학생이 4명, 중학교 졸업 후 고교 미진학자가 2명, 무학이 1명이었다. 연구참여지 중에는 보호관찰소 대상자가 13명, 소년원 대상자가 9명, 교도소 미결 대상자가 3명이었다.

가족구조 측면에서 이혼하지 않은 친부모와 동거하거나 기관에 오기 전까지 동거하던 경우가 9명이었고,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이 9명, 재혼한 부모와 동거하는 재구성가족의 청소년이 6명, 혼자 사는 경우가 1명이었다. 모든 참여자들은 이성교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8명이었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현상학적 자료수집을 위해 Holstein과 Gubrium(1995)의 액티브면접법(active interview method)을 사용하여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액티브면접법은 면접 자체가 “목적에 가진 대화”이며, “지식을 창조하는 과정(knowledge-in-the-making)”이라고 본다.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전문가인 연구자가 아닌 연구참여자는 가정을 출발점으로 하며, 개방형 질문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특정 현상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을 활성화 시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액티브면접을 통해 현상학적 연구를 위한 심층적 기술(thick description; Denzin, 1994)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자료수집에 앞서 2004년 1월에 예비면접을 실시하고, 예비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들을 정교화하는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쳤다. 면접의 내용은 비행청소년의 성관련경험이라는 현상을 탐색하기 위한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비행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성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들의 실제 성행동은 어떠하며, 이들이 성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들을 둘러싼 생태학적 체계들은 이들의 성관련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면접은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나, 특정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폐쇄형 질문을, 추가 정보가 요구될 때는 추적질문을, 면접이 진행된 다른 사례들과 비교가 필요한 경우는 대조질문도 함께 사용하였다.

면접의 실시는 소년원과 교도소 미결 대상자의 경우, 사전에 관련기관 및 수용 중인 대상자의 협조 승낙을 얻어 본 연구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면접을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질문 대상	성별	만 연령	학 력	기 관	경제 상태	가족구조	교육정도		직업*		첫 성관계	
							생부	생모	부	모	연령	상황
01	남	18	고1중퇴	소년원	중	재혼가족	초졸	고졸	건축업	전업주부	15	음주시 우발적
02	남	17	중2중퇴	소년원	하	한부모가족	모름	고졸	택시운전	공장	14	음주시 우발적
03	남	18	고2재학	소년원	중	친부모가족	고중퇴	고중퇴	건설트럭	전업주부	14	음주시 우발적
04	남	18	무 학	소년원	하	친부모가족	중중퇴	중중퇴	노동	전업주부	15	음주시 우발적
05	여	18	고1중퇴	보호관찰	중	친부모가족	초졸	초졸	농업	농업	16	음주시 우발적
06	여	17	고1중퇴	보호관찰	중	한부모가족	대졸	모름	모델	노래방	7	간강
07	여	19	중2중퇴	보호관찰	중	혼자 거주 (부모 이혼)	고중퇴	모름	모름	모름	17	우발적
08	여	17	중 졸	보호관찰	중	한부모가족	모름	모름	모름	가게준비	경험 없음	
09	남	17	고2재학	소년원	중	친부모가족	중졸	초졸	방앗간	방앗간	13	음주시 우발적
10	남	19	고2중퇴	소년원	중	친부모가족	중졸	중졸	건축	전업주부	17	호기심으로
11	남	17	중1중퇴	소년원	중	재혼가족	고졸	모름	철학관	전업주부	15	음주시 우발적
12	남	19	고1중퇴	소년원	중	친부모가족	중졸	중졸	부동산	회사원	15	음주시 우발적
13	남	15	중1중퇴	소년원	하	한부모가족	모름	중졸	모름	식당	12	간강
14	여	19	중2중퇴	보호관찰	상	재혼가족	대졸	고졸	인테리어	전업주부	17	호기심으로
15	남	20	중3중퇴	교도소	하	한부모가족	고졸	모름	모름	식당종업원	경험 없음	
16	여	21	중 졸	교도소	중	재혼가족	고졸	모름	양화점	모름	기억없음	유흥업소 손님과
17	여	20	중1중퇴	교도소	하	재혼가족	모름	모름	모름	모름	8	간강
18	남	16	고1중퇴	보호관찰	중	친부모가족	모름	모름	자영업	호프집	경험 없음	
19	남	16	중3중퇴	보호관찰	중	한부모가족	모름	모름	건축업	호프집	기억없음	우발적으로
20	여	16	중2중퇴	보호관찰	중	한부모가족	고졸	중졸	건축업	식당종업원	경험 없음	
21	여	16	고1재학	보호관찰	중	친부모가족	고졸	고졸	공무원	공무원	경험 없음	
22	여	18	고1중퇴	보호관찰	중	재혼가족	고졸	고졸	배달	PC방운영	경험 없음	
23	여	19	고1중퇴	보호관찰	하	친부모가족	모름	모름	노동	전업주부	17	음주시 우발적
24**	여	14	중1중퇴	보호관찰	하	한부모가족	무학	초졸	목수	식당종업원	13	우발적으로
25	남	13	중1재학	보호관찰	하	한부모가족	무학	초졸	목수	식당종업원	경험 없음	

\* 재혼가족은 동거하는 부모의 직업을 기록함.

\*\* 사례 24와 25는 남매임.

실시하였다. 보호관찰 대상자인 경우는 보호관찰 기관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소개받아 협조 승낙을 얻은 후, 연구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집이나 보호관찰소에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2004년 2월 17일부터 3월 24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면접시간은 평균적으로 80분이 소요되었으며, 면접 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액티브면접법을 통해 수집된 자

료를 전사하고, 중심주제분석법(them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중심주제분석법은 면접자료로부터 현상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개념, 관점, 표상, 태도, 가치관 등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중심주제들을 발견하여 조직화하는 질적 분석방법이다(Van Manen, 1990: 78), Spradly(1979: 199-201)는 중심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참여자들이 속한 맥락 내부의 사회적 갈등, 문화적 충돌, 비공식적 사회통제 기제, 사람들이 공식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거나 유

지하기 위한 수단,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정보 등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심주제분석법에 의거하여, 사례내분석(within-case analysis)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사례간분석(cross-case analysis)을 하였다. 즉, 먼저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각 연구참여자의 성관련경험에 관련된 주요 주제를 찾은 후 이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한 중심주제를 범주화하기 위해 횡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외적 사례에도 주목하여 분석의 정교화를 높이고자 하였다.

#### 4. 연구절차의 타당화검증

Creswell(1998: 194)은 질적연구가 신뢰롭고 타당하게 수행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과정의 타당화검증(verification)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Guba와 Lincoln(1985)이 제안한 참조자료의 사용(referential adequacy materials), 동료연구자에 의한 조언과 지적(peer debriefing), 반성적 일지쓰기(writing reflective journal)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위한 참조자료로서 녹음테이프 및 연구참여자 신상에 관한 기관의 문서자료를 추가로 이용하여 자료다원화(data triangulation)를 실시하였다. 또한 동료전문가들을 선정하여 본 연구자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을 견제하도록 하고, 이들의 관점과 조언을 경청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자들이 연구설계 단계에서 지녔던 시각이나 가설들이 실제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형상화되며, 발전되어 갔는가를 기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참여자들이 자료수집 과정 내내 보여준 솔직함과 개방성 역시 Guba와 Lincoln(1985)이 제안한 질적연구의 신뢰도(credibility)와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했으며,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것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면접 후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다.

오랜만에 솔직하게 다 말한 거 같아요. 후련하네요. 어른들 보면 막 답답했었는데, 내 마음을 좀 더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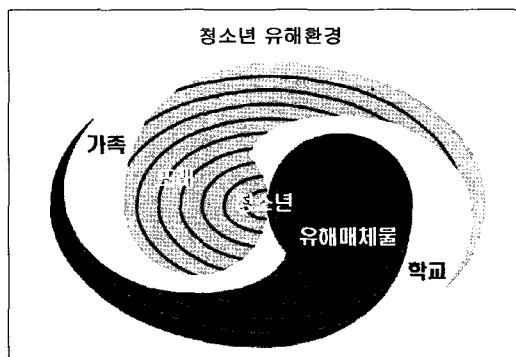
실히 말하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잖아요. (사례 8·女)

### III.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는 보호관찰, 소년원, 교도소 미결 상태인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관련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체계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한다. 이러한 생태학적 체계 안에서 비행청소년들이 개념화하는 성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들의 실제 성행동은 어떠한지, 이들이 성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관한 중심주제를 도출하여 구체화 하였다. 현상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연구결과』에서는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기술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이론적 해석의 개입은 『논의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 1. 성관련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체계

비행청소년들의 성관련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미시체계로는 이들의 가족, 또래, 학교, 그리고 유해매체물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미시체계들은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는 거시체계의 영향권 하에 존재한다. <그림 1>에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처럼, 각각의 체계는 서로 인접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청소년은 이러한 체계들의



<그림 1> 비행청소년의 성관련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체계

중심에 위치하며, 체계들 간의 역동적인 힘의 균형과 상호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다음은 연구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성관련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체계로 제시한 가족, 또래, 학교, 유해매체물, 그리고 유해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 1) 가족

가족구조 측면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이혼하지 않은 친부모와 현재 동거하거나 기관에 오기 전까지 동거하던 경우가 9명이었고, 부모의 이혼, 별거, 가출로 인해 부모 한쪽과 동거하는 청소년이 9명, 재혼한 부모와 동거하는 재구성가족의 청소년이 6명, 부모가 이혼한 후 혼자 사는 경우가 1명이었다. 가족구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기능 측면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은 부모 간의 불화를 지적했으며, 본인들도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민감한 주제인 성관련 지식이나 성관계행동에 대해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드물었다. 부모와 성에 대한 대화를 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13명이고, 나머지 연구참여자는 부모 중 한명과 피상적인 이야기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가끔 아버지한테 성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 얘기 아니고 다른 애들 얘기처럼 해서... 막상 입이 안 떨어졌어요. 무서워서... (사례 1·男)

엄마 아빠한테 성교육 받으려면요(웃음)... 민망할 것 같애(웃음). (사례 16·女)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가족은 성관련 지식이나 가치관 형성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있어 부모와 성에 대해 “속내를 터놓고” 대화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생업으로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 청소년들은 성관련행동에 대한 성인의 지도나 보호를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엄마는 저희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 안 해요. 그냥 어디서 잤냐구만 묻고... (사례 24·女)

### 2) 또래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성고민이나 성문제 발

생시 가족보다는 친구와 상의한다고 대답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친구들도 대부분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이들에게 “동변상련”의 감정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친구들과 만나 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자주 나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구들의 성관련 지식이나 문제해결 능력이 연구참여자들보다 크게 낮지 않으므로, 원활한 해결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친구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자기 여자친구랑 뭐 하는지 친구들끼리 다 이야기 합니다. 속 얘기가 지... (사례 9·男)

애를 배면 돈은 친구들이 모아주고, 그냥 친구들 부모님 증명서 하고 돈만 있으면 때 준대요. 친구들이 부모님 몰래 도장을 다 찍어서 해주니까... (사례 21·女)

### 3) 학교

학교 현장이 청소년들에게 성관련 지식이나 가치관, 문제해결 능력을 학습시킬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의 공식적 성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시수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고루한 생물학적 상식 위주여서 식상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경험해버린 성행동에 관한 모호한 지식보다는 실제로 성문제를 예방하거나 성문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원했다. 또한 이들은 성관련 문제시 의존할만한 대상을 묻는 질문에 담임교사나 보건교사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자신들의 성관련 문제를 해결한만한 상담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어른들은 애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들도 다 [총각딱지] 떼는데 그걸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 막 생식기 그런 못 알아듣는 말, 간단간단히 얘기하면 되는데 지식적으로 하면 짜증납니다. 간단간단히 고추면 고추 하는 식으로... (사례 9·男)

성교육 하면 거의 그런 거 해 주잖아요. 정자가 난자로 가서 배란하고 막 그런 과정, 그런 거 가르치

잖아요. 그런 거 다 알잖아요. 정자 난자 만나면 애 나오는 거 다 아는 건데... 어떻게 하면 성병에 걸리고 이런 거, 좀 현실적인 거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아는 선배오빠가 집에 불려서 그랬을 때 [강간했을 때] 대처방법이라든가, 그런 건 아예 모르니까. 맨 처음 당한 그런 애들은 선배님 집에 순진한 마음으로 갔다가 집에 아무도 없고, 선배라는 무서운 것 땀에 대놓고 어떻게 소리도 못 지르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당황하는 애들한테 성교육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어요. 좀 현실적인 거... (사례 8·女)

#### 4) 유해매체물

청소년들에게 인터넷과 비디오 등의 매체는 삶의 일부인 동시에 이들을 통해 전달되는 성관련 정보는 모니터 하기 어려우므로 성인들의 관심이 요구되어 왔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 명(사례 15·男)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인영화나 음란자료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6명(사례 2·男, 3·男, 6·女, 9·男, 13·男, 14·女)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유해매체물을 접해왔다. 성인영화나 음란 자료를 접하는 빈도는 매우 자주 보거나(사례 1·男, 4·男, 6·女), 심심할 때마다 보거나(사례 3·男, 5·女, 6·女, 19·男), 가끔씩 본다(사례 18·男, 25·男)는 등의 응답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성인영화나 음란자료를 자신들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한다는 것이다. 본인의 집, 친구 집, 학교 등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나 대역한 비디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성인영화나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백업 CD로 복사를 한 건데, 불법이죠. 그렇게 해서 인터넷상에서 몰카, 처음 봤습니다. 선생님 안 계실 때 학교 안에서 다 봤습니다. (사례 11·男)

그냥 친구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비디오 본 거 있는데 그거 한 번 보자"고 해서... 친구들 집에서 막 보고, 저희가 상상도 못할 진짜 뭐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오고, 그 때 처음 봤습니다. (사례 12·男)

연구참여자들은 성인영화나 음란물의 내용에 대

해 "재미있다(사례 4·男, 6·女)"거나 "편한 내용이라 짜증이 나기도 하고(사례 3·男, 22·女)," "더럽고(사례 7·女, 14·女, 19·男)," "유치하며(사례 16·女)," "민망하다(사례 14·女, 23·女)" 등의 다양한 느낌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자료를 접한 후에는 대부분 흥분과 충동을 느낀다고 말했으며, 자위행위(사례 5·女)나 모방행동을 하고 싶은 생각(사례 12·男)이 들고, 성관계행동을 할 때 따라해 보기도(사례 1·男, 10·男)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참여자(사례 3·男)는 음란물을 본 후 충동으로 성매매를 하려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중학교 들어와서 집에 인터넷 되고 나서,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심심하면 봤어요. 맨 날 보다가 밤새도록 본적도 있어요. [야한 내용 보고나서] 잠 못 자고 이러는 거... 그 때 새벽에 막 돈 들고 나갈 뻔했어요. 3만원짜리 아줌마들한테 가서 [해결하려고 했지요.] (사례 3·男)

제 친구들은 그런 비디오를 보면 화장실로 뛰어가거나, 여자 친구한테 전화해서 막 만나자고 한다거나, 여자친구가 옆에 있으면 둘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사례 19·男)

#### 5) 유해환경

연구참여자들의 성관련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또래, 학교, 그리고 유해매체물 등은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는 거시체계의 영향권 하에 존재한다.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들이 즐기기 위해 출입하거나 "알바(시간제노동, 부업)"를 하는 유흥업소, 대가성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숙박업소, 불법비디오방 등의 물리적 환경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을 유해한 물리적 환경이나 영상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부족한 사회적 환경, 그리고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성에 관한 합의된 가치관이 부재(不在)한 심리적 환경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증[주민등록증]을 위조해(사례 2·男)" 유흥업소에 빈번히 놀러가며, 연구참여자 절반이 이곳에서 "알바"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취업한 유흥업소, 취객을 상대로 한 호객행위,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대가성

성관계행동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서, 본인이나 친구들의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친구네 집에 잔다고 하고 가죠... 술을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채팅방 같은 데서 그런 남자를 만나요. 만나서 술 먹다 보려는 그러구[성관계하고] 와요. (사례 21·女)

중학생들도 다 하는데요. 지금 학생들 거의 30대 아줌마들 다 차지해요. 저희 나이트는요, 웨이터하면 다 아줌마들 하고 자고 그래요. (사례 10·男)

돈이 없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도 막 그렇구 그러면은, 인제 일해도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솔직히 남자랑 한번 자는 게 돈을 더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일부터 유흥가도 가고, 그런데 찾아가는 여자애들 있거든요. 또 술꾼아저씨들을 유흥해 갖고, 그 아저씨 지갑을 막 갖고 와서 쓰는 애들도 있어요. (사례 23·女)

성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행동 이외에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돈을 주었다는 경우(사례 1·男)도 있었다. 이는 돈을 주면 성관계행동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일부 청소년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경우여서 주목할 만하다.

제 여자친구한테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편으로 불안한 게 있어서 그랬죠. 그냥 용돈 쓰라고 5~10만원씩 준 적이 있습니다. 혹 연루돼서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그렇게 돈을 주죠. 돈을 줄 때 단들이 있을 때 주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커피숍에 있다가 "나 돈이 있는데 니가 알아서 용돈하고 써라" 하면서 주죠. 친구들이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개가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개에게 돈을 줬다. 돈 줬는데 무슨 죄냐"하고 따질 수 있습니다. (사례 1·男)

## 2. 성관련경험에 대한 중심주제들

### 1) 성관계의 의미: "남자랑 여자랑 하는 거요."

연구참여자들은 성관계란 단어에서 연상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 생물학적 성적결합을 떠올렸다. 성의 관계적 측면보다는 행위적 측면에 강조를 둔 이들의 대답은 "남자랑 여자랑 하는 것(사례 7·女), 구르는 것(사례 18·男), 어릴

때는 결혼이었고 지금은 즐기는 것(사례 3·男), 야한 것(사례 25·男), 여자의 벗은 모습(사례 11·男), 징그러운 것(사례 8·女), 임신(사례 22·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디오에 나오는 것(사례 14·女)"이란 대답 속에 성외설물에서 보여지는 행위들도 반복적으로 묘사되었다.

성(性)하면 생각나는 거 말입니까? (침묵) 성하면 생각나는 거는 애들이 여러 명이서 한 여자 데리고 하는 것. (사례 4·男)

### 2) 순결의 의미: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연구참여자들은 결혼 전 순결에 대해 성별에 따라 그 중요도나 의미가 다르다고 대답했다. 즉, 여성은 순결을 지켜야하고, 남성은 지킬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더 많은 성경험이 권장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혼전순결의 의미가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반응은 5명에 불과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우리사회에 지배적인 이중적 성윤리를 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였다.

남자들은 많이 따지니까, 첫 날밤 순결 지킨 여자를 좋아하겠죠. [순결을] 안 지키면 여자는 꺼림직하겠죠. 여자들은 남자의 순결을 안 따지죠. 남자들은 많이 따져요. 남자들은 그 순간의 쾌락을 즐기 위해, 스트레스 많이 쌓이면 성관계로 푼다고 들었는데... 여자들은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안하겠죠. 여자들은 진짜 사랑해서 몸을 바칩니다. 나중에 남자에게 버림받고 후회해도 늦으니까, 불쌍해요. (사례 1·男)

남자는 솔직히 순결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애 얼굴 보면 저희들끼리 "재 성관계 많이 했다" 딱 얘기하는데요, 남자는 성관계해도 변함이 없으니까, 여자는 변하니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4·男)

남자 입장에서 내 여자가 순결하다 하면은, 내가 처음이니까 그게 좋은 거죠. 여자는 이 남자가 순결하다 그러면 안 좋지요. 경험이 부족하니까. (사례 14·女)

차별이 심하다고 그러냐? 여자들이 그러면 걸레 같은 년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많이 하고 그런 거 같아요. (사례 17·女)



여자는 사랑하기 위해 하는 거고, 남자는 그걸 하기 위해 사랑하는 거고. (사례 13·男)

### 3) 첫 성관계행동: “어쩌다보니까 그냥 하게 됐어요.”

연구참여자들 모두가 이성교제 경험이 있으며, 이중 18명은 일상적인 성관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첫 성관계는 의도된 상황에서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그때의 분위기나 우발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또래의 압력이 작용하기도 하고, 호기심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이 전체 18명 중 14명이었다. 나머지 4명은 간강(사례 6·女, 13·男, 17·女)이나 유흥업소 손님(사례 16·女)의 경우였다.

처음 성관계는 중학교 2학년 때 여자친구랑 저희 집에서 했죠. 남자는 충동적인 게 있죠. 우발적으로... 술 한 잔 먹고 분위기가 이끌어 가다 보니까... 술을 먹으면 일단 사람이 용기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혼수상태.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런 느낌 때문에 하고 싶은 충동으로 하게 되고, 하고 나면 심겁죠. (사례 2·男)

친구들이 여자애를 소개해서 같이 놀다가, 술자리에 했죠. 친구들이 강요를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처음 하게 됐습니다... “안하고 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부추겨 가지고, 술자리에 어울리다가 했죠. (사례 12·男)

특히 첫 성관계 경험을 간강으로 기억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이 있었는데, 만 7세 때(사례 6·女)와 만 8세 때(사례 17·女) 강간을 당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또한 12세 때 “아는 누나들”에게 강간을 당한 남자청소년의 경우(사례 13·男)도 있었다. 간강은 “성관계가 아닌 폭력”이라는 의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성피해 경험에 대한 회상은 분노, 좌절, 불쾌감을 동반하며 표출되었다. 성피해 경험을 한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자신의 성에 대한 태도나 행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성피해 경험이라고 언급하였다.

아빠 친구 아들이었죠. 그때는 성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크면서 알게 되어서 놀랐어요. 그때 감정이요? 죽이고 싶어요. (사례 6·女)

제가 좀 어렸을 때 누나들이 귀엽다고 같이 놀러 다녔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저를 술 먹여 놓고 한 것 같아요. (사례 13·男)

### 4) 성관계행동의 일상화: “요즘 애들 다 해요.”

연구참여자들은 본인들의 성관계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혼전성관계에 대하여 높은 허용도를 보였다. 2명(사례 15·男, 23·女)을 제외하고는 모두 혼전성관계에 대해 찬성을 하였고, 심지어 “사랑하지 않은 대상과의 성관계도 괜찮다”는 응답이 11명에게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성관계행동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입장이 주도적이었는데, “학생들만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사례 11·男),” “호기심으로 하는 것이고 자제를 못하기 때문에(사례 1·男)”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 경험이 있어 봐야 한다(사례 9·男)”며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예도 있었다.

임신만 안하구요. 내가 생활하는데 지장만 없다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례 5·女)

청소년들이 성관계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면 좋다고 봐야죠. 만 18세가 되면 부모 허락 없이 결혼하는데, 성관계하는 건 이상한 문제가 아닙니다. 호기심에 하는 애도 많습니다. (사례 2·男)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 친구들은 성관계 안 가지는 애들이 없습니다. 다 한 두 번씩은 갖고, 또 마음이 맞으면 같이 생활하고 싶다고 하죠. (사례 19·男)

연구참여자들이 일상적으로 성관계행동을 하는 곳은 본인이나 친구 집, 또는 숙박업소 등이었다. 지속적으로 만나는 이성관계가 아닌 경우 친구들의 소개나 인터넷을 이용해 성관계행동을 위한 대상을 찾았다.

일단은 다 채팅해요. 채팅으로 남자를 만나요. “버디버디” 아세요? “버디버디” 가면은 “몇 대 몇 번 개 할래?” 이라고선 쪽지가 막 오거든요. 만약에 3명이 있다면 “3 대 3 공개하자,” 그러면 만나요. 그러면 뭐 모텔 가거나 개네 자취방이 비면 술 사가

고... 가서 먹고 게임 하고... 남자들이 여자한테 술 더 마시게 하려고 딱 그래요. 그러다 풀리면 할려구 하죠. (사례 22·女)

##### 5) 성관련 문제에 대한 대처: “그건 잘 몰라요.”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성관련 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이들 중 18명은 일상적인 성관계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성관련 지식에 대한 무지함과 성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의 부재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들 중 6명을 제외한 19명은 몽정이나 초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다. 이들은 자신의 몽정이나 초경의 느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회상하였다. “죽을병 걸린 것 같았어요(사례 7·女).” 또는 “찝찝하기도 하구요. 무섭구요(사례 20·女)” 등의 반응처럼 자신의 2차 성징에 대한 두려움과 불쾌감이 주요 정서로 대두되었다.

학교에서 갑자기 [초경이] 터져 갖고 수업 그만두고 집에 갔는데요. 찝찝하고, 기분이 더러웠는데... 초등학교 때 성교육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었거든요. 뭐, 엄마 생리대를 많이 보기는 했는데 직접 쓰는 거 같은 거는 하나도 몰랐어요. (사례 5·女)

[몽정 때 느낌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눈을 딱 떴는데, 밑에 딱 보니까 뭐 이상한 게... 아! 중학교 때구나. 이게 뭔지, 저는 병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자위를 했습니다. 자위 때문에 병이 생겼나 하는 생각 때문에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한참 고민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고민했죠. 엄마가 요즘 뭘 일 있냐고 물었고, 그때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례 12·男)

연구참여자들은 피임방법에 대해서도 지식이 부족했다. 경구피임약이나 콘돔에 대해 알고 있는 참여자가 8명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르고 있었다. 일상적 성행동을 하는 18명 중 14명의 연구참여자는 의도적인 피임방법을 사용한 경험이 없었다. 실제 사용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는 4명이었는데, 사례 9(男)는 콘돔을, 사례 16(女)은 경구피임약과 콘돔을, 사례 17(女)은 경구피임약을 사용하였으며, 사례 7(女)은 예외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알고 사용하고

있었다. 피임방법에 대한 무지는 단순히 “모른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릇된 지식을 옳은 것으로 믿는 오류를 낳기도 한다.

피임방법? 그건 잘 모릅니다. 옛날 방식은 들어요. 하다가 안에다 싸고 아랫배를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면 정자를 죽인다고 하던데. (사례 2·男)

연구참여자들 중 23명이 혼전성관계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미 18명은 성관계행동을 일상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피임방법에 대한 단편적 지식과 낮은 피임실천률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참여자들 가운데 임신 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은 2명(사례 7·女, 16·女)이었고, 남자청소년의 경우 4명의 여자친구가 임신한 경험이 있었다(사례 2·男, 10·男, 11·男, 13·男). 본인 또는 여자친구의 임신은 모두 원치 않는 임신이었으며, 현재 여자친구가 임신하여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사례 1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낙태를 해결방안으로 선택하였다. 임신 경험이 없는 연구참여자들도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경우에는 “떼야죠(웃음) (사례 5·女)”라고 대답하며, 낙태를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자친구들이 임신한 적이 있습니다. 4번이나... 여자친구들한테 돈을 쥐서 다 지웠습니다. 30~40만원이면 충분히 하니깐... 제가 아는 누나가 성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해서 산부인과 가서 애를 지우고 그렇게 했죠. 마지막에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질 때 “니가 애를 배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개가 진짜 애를 뺐 거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자기가 알아서 지우고 그렇게 했죠. (사례 11·男)

임신을 했었어요. [남자친구가] 낳으라고 했었는데 8개월까지 있다가요, 겁나기도 하고 키울 자신도 없고... 그래서 제가 몰래 가서 친구랑 지우고 왔는데... (사례 7·女)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돈이 많으면 애 떼러가고, 부모님 이런 거 없어도 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떼거나, 옛날 말에 일부러 간장 한 사발 마시고 때는 수도 있고, 술 많이 먹으면 낙태, 유산 된대요. (사례 22·女)

#### IV. 논의점

본 연구는 보호관찰, 소년원, 교도소 미결 청소년들의 성관련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체계에 관한 고찰을 통해 이들이 개념화 하는 성의 의미, 성행동 경험, 그리고 성문제에 대한 대처방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일반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관련경험을 다루거나, 또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이들의 성관련경험은 간과한 채 일탈이나 문제행동에만 초점을 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를 통해 비행청소년들의 성관련경험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성관계를 육체적 결합으로 제한하여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협소한 정의는 부정적인 정서(“징그러운 것.” 사례 8·女)를 수반하거나, 유해매체물에서 나타나는 폭력적이고 외설적인 묘사로 표현되었다. 성관계가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정서적 교류의 연장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 반응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이 성관계의 애정적 측면을 간과한 것은 이들의 실제 성관계행동으로도 표출되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첫 성관계의 우발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청소년의 초기 성행동이 음주와 관련된다면 연구들(손에리, 2002; 한인영 외 2인, 2001)처럼, 본 연구참여자들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첫 성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다. 주목해야할 것은 첫 성관계행동이 연쇄적으로 다음 성관계행동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성관계행동의 일상화로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염순교, 2003). 성관계행동의 일상화는 성관계가 애정적 결속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행위를 위한 행위”로 규정됨을 시사한다. 연구참여자들이 보인 혼전성관계에 대한 높은 허용도 역시 이들의 초기 성행동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추론되며, 이는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초기 성관계에 정적상관을 나타낸 연구들과 일치한다(이창식, 김윤정, 2003; Hendrick & Hendrick, 1987). 연구참여자들이 보인 성관계에 대한 허용적 태도와 초기 성관계행동의 일상화는 우리사회가 청소년의 성에 대

해 갖고 있는 보수적 인식과 괴리를 나타낸다.

한편 연구에 참여한 비행청소년들은 우리사회의 기성세대가 갖는 성에 대한 이중성(남영옥, 이상준, 2002)을 모방하고 있다. 성에 대한 이중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공적으로는 성에 대해 금기시 하면서 은밀한 공간에서는 적극적인 우리의 모순적 성문화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음지의 상업적 성문화에 개입하여 대가성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대한 이중성의 두 번째 측면은 성별에 따라 성행동의 의미를 다르게 부여한다는 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순결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기성세대의 성차별적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들은 혼전 성관계행동에 대해 높은 허용도를 보임과 동시에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보수적 가치관을 공존시키면서 성차별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성관련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체계로 가족이나 학교 보다는 인터넷이나 비디오를 통한 유해매체물, 그리고 또래의 영향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중영상매체가 청소년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급부상 하였듯이(남영옥, 이상준, 2002; 우리사회연구회, 1998; Gruber & Gruber, 2000), 본 연구참여자들도 유해매체물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성에 관한 개념을 형성하고 성행동을 모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성충동을 가장 자극하는 것이 음란성매체이며, 일탈적인 청소년일수록 음란매체 접촉도가 높고, 음란매체에 대한 접촉도가 높을수록 성적허용도가 높다는 결과(박성정, 1996; 주주영, 양성은, 2004)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유해매체물과 함께 연구참여자들의 성관련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체계는 또래집단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성지식이나 성행동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대상을 주로 또래로 한정하고, 성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또래를 의논상대로 삼았다. 이는 청소년들이 또래를 가장 큰 자원으로 인식한다는 결과(김영희, 김운주, 박영옥, 이희숙, 김창기, 2000)와 일치하며, 또래집단 내에서 유사하고 폐쇄적인 성문화를

형성한다는 주장(윤경자, 2002)을 지지한다. Wilson (1994)도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감이 청소년기에 최고조를 보이며,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청소년 본인과 마찬가지로 또래도 성에 관한 의미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미성숙한 존재이며, 성에 대한 지식이나 문제해결능력도 이들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참여자들이 보이는 성지식에 대한 무지와 성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의 부재는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래집단이 결국 효율적인 지원체제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청소년들에게 보다 정확한 성지식과 성관련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학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한다. 그러나 본 연구참여자들의 가족은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는 외체계나 유해매체 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가족(the intact family)에 대한 신화에서 벗어나 가족구조 자체 보다는 가족기능에 초점을 두어야한다는 이론적 당위성을 숙지한다면, 본 연구에서 가족구조가 청소년 비행이나 초기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론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가족기능 면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와의 불화 또는 부모의 방임, 그리고 부모와 성에 관한 대화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부모가 청소년의 성관련경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족생활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청소년의 성관련경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가족기능의 강화와 함께 공식기관인 학교의 역할 역시 재고되어야한다. 공식적 학교 성교육이 연구참여자들의 성관련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일반청소년들도 학교환경을 가장 낮은 자원으로 인식한다는 보고와 유사하다(김영희 외 4인, 2000). 특히 본 연구참여자들이 같이 일탈 및 부적응을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주입하는 단편적, 해부학적 성지식으로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 이들의 성관련경험에 대해 이

해하고 비판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의 역할과 함께 특화된 학교내 성관련 프로그램의 시행이 정책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소수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질적분석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성관련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보호관찰소, 소년원, 교도소 등에 가게 된 이유를 차별화 시키지 않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범주를 구체화 시켜 이들의 성관련경험을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 교사, 정책입안자들이 청소년, 특히 일탈이나 부적응 문제를 겪는 청소년들의 성관련경험을 이들이 처한 생태학적 맥락과 연계지어 이해하고, 성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실천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 참고문헌

- 감민곤, 윤정환, 박지인, 김나영, 김도현, 정영권(2002). 청소년 비행의 최근 동향. [http://www.survey.com/criminology/report/2002\\_1/7.htm](http://www.survey.com/criminology/report/2002_1/7.htm)
- 고미자, 유숙자(2003). 해결중심 집단상담이 비행청소년의 생의 목적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2(1), 5-15.
- 김명아(2002). 현실요법이 비행청소년의 통제위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1(2), 172-182.
- 김영희, 김운주, 박경옥, 이희숙, 김창기(2000).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의 일탈행동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49-169.
- 김혜원, 임동원(2004). 남녀 고등학생들의 하위유형별 비행발생의 관련성 파악: 폭력비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5(1), 167-189.
- 남영옥, 이상준(2002).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사이버음란물 접촉 및 성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9(3), 185-212.

- 박성정(1996). 청소년의 성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애리(2002). 청소년의 건강위험행동별 음주 및 성경험 위험정도. 한국알코올과학회지, 3(1), 5-14.
- 양종국, 지용근(2002). 비행청소년의 개인 배경변인 및 위험요인·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한국의 청소년문화, 3, 349-381.
- 염순교(2003). 성역할 정체성과 성경험. 여성건강간호학회, 9(3), 309-318.
- 우리사회연구회(1998). 성과 현대사회. 서울: 파란나라.
- 윤경자(2002). 청소년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의 발생과 관련 위험요인들. 대한가정학회지, 40(1), 179-194.
- 윤명선, 김순옥(2001). 초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9(5), 107-121.
- 이창수(1998).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관의 관계. 아동교육, 7(1), 202-217.
- 이창식, 김윤정(2003). 청소년들의 사랑과 성태도. 청소년학연구, 10(1), 277-296.
- 장순복, 김소야자, 한인영, 박영주, 강현철, 이선경(2001). 심대 여학생의 성행태와 성경험 관련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1(5), 921-931.
- 조선닷컴(2004). 9월 20자. 성매매여성 43% 10대때 성매매 시작. [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9/200409200121.html](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9/200409200121.html)
- 조아미(1999).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1), 115-126.
- 조용환(199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조주영, 양성은(2004).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성문제 예방프로그램 개발. 충청북도교육청.
- 조주영, 이영숙(2003). 청소년 성의식·태도·행동에 대한 실태조사. 청주시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보호위원회(2003). 2003 청소년보호백서.
- 통계청(2002). 청소년통계, 41.
- 한인영, 박인선, 백연옥(2001). 청소년의 성행동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지, 21(1), 138-148.
- Creswell, J. H.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
- Denzin, N. (1994). The art and politics of interpretation. In N. Denzin and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500-515). London: Sage.
- Gruber, E. & Gruber, J. W. (2000). Adolescent sexuality and the media: A review of current knowledge and implications. *West Journal of Medicine*, 172, 210-214.
- Guba, E. & Lincoln, Y.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 Hendrick, C. & Hendrick, S. (1987). Love and sexual attitudes, self-disclosure, and sensation seek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4, 281-297.
- Holstein, J. A. & Gubrium, J. F. (1995). *The active interview*.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
- Schwandt, T. A. (1997). *Qualitative inquiry: A dictionary of terms*.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
- Spradly, J. P.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s: Human science of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ew York: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Wilson, P. W. (1994). Forming a partnership between parents and sexuality educators (Reflections of Parent advocations). *SIECUS Report*, 1-5.

(2004년 10월 31일 접수, 2004년 12월 15일 채택)